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5(2), 185-197 (2019)

단순, 복합재귀사 인칭별 비결속 제약

박강희

위덕대학교

The Non-binding Constraints of Simple, Complex Reflexives According to the Person

Park, Kang-Hee

Uiduk University

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5.2, 185-197. In this paper, I accept the Reinhart and Reuland(1993), Reuland(2006)'s suggestion about the reflexive's category and apply it to the Korean's simple reflexives, complex reflexives in the Geldren's reflexive structure. The Korean complex reflexive 'jagi jasin' is considered to be the unification of SE reflexive and SELF reflexive. Therefore, it is distinctively used as having the characteristic of two reflexives simultaneously. It appears as [$_{NP}$ jagi [$_{N}$ jasin]] that jagi is the D position of DP and jasin is the N position. In Jeonwitae(1996)'s pragmatic hierarchy, I suggest correcting his pragmatic hierarchy. Also, I suggest that jagi is not bound with the 1st pronoun antecedent, but bound with 2nd, 3rd pronoun antecedent contradictory to other professors' suggestions. But even more, also, even if some sentences are the same structure, in case atomic verb has the specific lexical, semantic feature and is used by the specific mood, 'jagi' is coindexed with the 1st pronoun against some other professors' suggestion. This means that the binding can happen by the pragmatic element: the mood, the point of view, or subjectivization. **(Uiduk University)**

Keywords: hierarchy, SELF-anaphor, complex reflexive, SE-anaphor, feature

OPEN ACCESS

https://doi.org/10.18627/jslg.35.2.201908.185

pISSN : 1225-4770
eISSN : 2671-6151

Received: July 04, 2019

Revised: August 05, 2019

Accepted: August 15, 2019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2019 the Modern Linguistic Society of Korea

본인이 투고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없으며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지 않았음을 서약합니다. 추후 중복게재 혹은 표절된 것으로 밝혀질 시에는 논문게재 취소와 일정 기간 논문 제출의 제한 조치를 받게 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1. 서 론

단순재귀사와 복합재귀사 중, 영어의 재귀사는 복합재귀사의 모습을 띠고 있다. 반면 일본어 재귀사 'zibun', 중국어의 'ziji'의 경우도 단순재귀사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재귀사는 단순재귀사 '자기', '자신'과 복합재귀사 '나 자신', '너 자신', '그 자신', '자기 자신'의 형태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속 해석에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하여 형태구조론적 결속과 화용론적 결속 현상을 보여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Keenan(2002, 2003)에 의하면 고대영어에서는 인칭대명사를 재귀대명사로 사용하였다, 중세영어시절 까지는 강조의 목적으로 사용되던 'same'의 의미를 지닌 self, owen, ilk 등이 사용되다. 1200년 이후에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던 self가 여격대명사와 결합하여 생긴 것이라고 한다.

본고에서는 단순재귀사와 복합재귀사를 분류한 Reinhart and Reuland(1993), Reuland(2006)의 제안을 한국어 재귀사에 적용해 분류 수정하고, Geldren(2010)의 재귀사구조를 한국어 복합재귀사에 적용 분석하여 단순재귀사 '자기'와 복합재귀사 '나/너/그 자신'과 '자기 자신'의 인칭별 결속해석 양상을 분석하여 인칭별 제약을 보인다.

단순재귀사 '자기'는 1,2인칭과 결속되지 못하며, '자신'은 모두 허용 된다는 문제를 논의한 학자들(김용석, 2000; 최기용, 2013; 홍성심, 2015)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2인칭과 결속되는 경우를 보이고 전위태(1996) 화용적위계표의 수정도 제안한다. 특히, 재귀사 '자기'는 핵어동사의 PATIENT 위치에 1인칭대명사 '나'가 들어가 있는 경우, '자기'가 1인칭과 결속되는 흥미로운 모습도 보인다. 선행어가 핵어동사의 PATIENT인 경우, 재귀사 '자기'가 선행어 1인칭 대명사인 '나'와 결속되어진다.

'자신'이 1,2,3인칭 선행어 모두에 결속 허용되는 것은, SUBCAT 의미자질에 '나/너/그' 자질이 명확히 내재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이고, 내재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경우 결속 해석이 모호해지는 해석들이 나타난다. '자신'이 단순재귀사 인지 복합재귀사 인지 논의가 필요함을 보인다.

복합재귀사 '자기 자신'은 SE 재귀사와 SELF재귀사가 결합된 형태이며, '자기'는 DP의 D 위치, '자신'은 N 위치의 구조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두 재귀사의 자질 속성을 지닌 채 사용되어 둘 중 하나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을 피하는 해석을 보이며 결속 해석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1인칭과 결속 해석되지 못하고, 2,3인칭 하고만 결속 해석되어 진다.

또한 같은 구조라 할지라도 핵어동사가 특별한 어휘정보자질을 지니고 있는 경우, '자기'가 선행어 1인칭 '나', 2인칭 '너'에 모두 결속되어 1,2인칭과 결속되지 않는다는 다른 학자들의 주장을 무색하게 한다. 이것은 선행어 인칭에 관계없이 특별한 어법인 서법(mood)에 의해 핵어동사가 사용될 경우 관점, 주관화 같은 화용적요인인 서법에 따라 결속해석이 이루어 질 수도 있어 '자기'가 1,2인칭 대명사 선행어와도 결속되어진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2. 본 론

2.1 재귀사 시대 고찰

박의재(1999)는 Brut(2140)에 의하면 중세영어의 재귀사라고 할 수 있던 self, owen, ilk 'same' 등은 재귀사라고 하기보다는 중세영어시절 까지는 강조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한다. 다음 그 예를 보이고 있다.

(1) a. mi self, ich gon atstonden uppen ane wolden
(나 자신은 숲속에서 싸울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Brut,2140)

b. þe hæðenan *selfe* hæfdon se wundor on þære mæston are
= the pagans *self* had the miracles the greatest honor
'the pagans themselves had his miracles in the greatest honor'(Mart 12.150)
(이교도 자신들은 엄청난 영광 속에 기적을 경험했다)

Keenan(2002, 2003)에 의하면 고대영어 시기에는 재귀사 만의 형태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인칭대명사를 재귀대명사로 사용했다고 한다. 이후 1200년 이후에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던 self가 여격대명사와 결합하여 생긴다. 이필환(2006)은 self형 복합재귀사가 나타나 사용되게 된 것은 3인칭 때문이라고 했다. 3인칭 대명사를 선행어로 갖는 경우 지칭적 기능 외에 재귀적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에 self형 복합재귀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물론 1,2인칭의 경우는 지칭적 기능만을 갖고 있었다.

이 문제가 영어 재귀사 형태가 복합재귀사 형태를 띠고 있어 동일절 내 성분통어 영역에서의 결속 해석이 단순한 것에 비해, 한국어 '자기' '자신', 중국어'ziji`, 일본어 'zibun'의 결속 해석이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된 역사적 배경으로 보인다.

2.2 한국어 재귀사 구조, 분류 양상

Chomsky(1991,1992)의 결속 현상 설명에서 단점은 한국어 재귀사 '자기'와 중국어 재귀사 'ziji' 등이 명시주어조건(SSC) 준수하지 않으며, 국부결속의 경우에서 장거리 결속에서 나타나는 주어지향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Reinhart and Reuland(1993, 이하 R and R로 표기), Reuland(2006)에 의하면 복합형태소 어휘로 이루어진 대용사를 SELF 대용사라고 부르며 국부결속된다. self재귀사는 영어의 myself, yourself, himself, 노르웨이어의 seg selv, 이탈리아어의 se stesso등을 말한다. SE 대용사는 단순재귀사를 말하며 장거리 결속된다고 본다. 일본어 zibun, 중국어 ziji, 네덜란드어 zich, 이탈리아어 seg, 노르웨이어 등을 말한다.

Reinhart & Reuland(1993: 655)의 재귀사 내부구조는 다음과 같다.

(2) a. Pronoun: [$_{NP}$ Pron [$_{N'}$ ... e ...]]
b. SE anaphors: [$_{NP}$ SE [$_{N'}$ ... e ...]]
c. SELF anaphors: [$_{NP}$ Pron/SE [$_{N'}$ self]]

김용석(1996)에 의하면 '자기'와 '자신'이 단순재귀사이며 복합재귀사와는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이 단순재귀사 '자기'와 '자신' 모두 N에 속한 범주로 D의 위치로 핵이동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기'는 SPEC 자리가 비어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자신'은 DP의 지정어 자리에 pro가 있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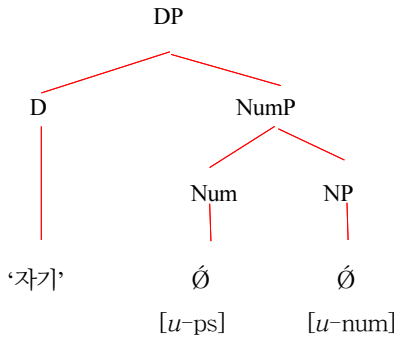
'자기'와 '자신'은 단순재귀사로 결속해석에 있어서 선행어의 인칭에 따라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로 첫 번째는 형태구조적 차이 때문으로 보이며, 둘째는 어휘 의미자질의 차이라고 보여진다.

R & R(1993)의 제안을 한국어 재귀사에 적용해 보면 '자기'는 SE 재귀사 구조이며, '자신'은 SELF 대용사 구조라고 보여진다.

(3) a. Pronoun: [NP 나/너/그 [N' ... e ...]]
b. SE anaphors: [NP 자기 [N' ... e ...]]
c. SELF anaphors: [NP e [N' 자신]]
d. SELF anaphors: [NP 나/너/그(의) [N' 자신]]

본고에서는 한국어 단순재귀사와 복합재귀사는 R and R(1993: 658)의 재귀사 내부구조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어 재귀사를 수정 분류하고, Geldren(2010)[1]의 재귀사 구조를 결합하여 다음과 같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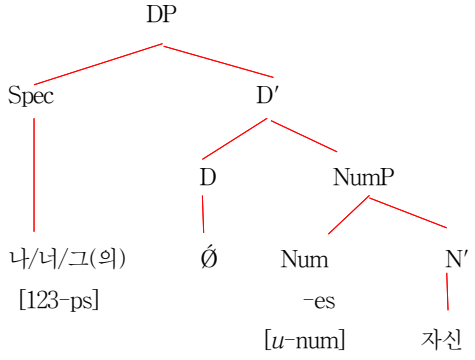
(4) 한국어 단순재귀사 '자기'의 구조
R and R(1993: 658)의 SE anaphors: [NP SE [N' ... e ...]] 구조이며
Geldren의 재귀대명사 구조가 결합한 형태



즉, '자기'는 SE anaphors 내부 구조 [NP SE [N' e]]의 SE 위치에 속한다. 왜냐하면 단순재귀사로 독자적인 단순 어휘재귀사로 사용되므로 타 언어의 단순재귀사 처럼 사용되고, '자기' 뒤에 강조 의미자질인 '자신'을 후치시켜 복합재귀사 '자기 자신'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때의 '자기'는 영어의 my나 한국어 '나/너/그'처럼 소유격 자리인 SPEC 위치는 아니기 때문이다. Geldren 제안 구조의 D 위치에 있고 DP 구조의 핵 위치인 D 자리이다. 한국어에서의 '자기 자신'이 이 구조에 속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자기'는 인칭대명사 [PRON 2nd] 어휘자질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어휘재귀사 '자신'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소유격대명사를 포함하는 재귀사 '나/너/그 자신' 구조의 경우를 보자.

(5) 한국어 '자신'과 '나/너/그 자신'의 구조
R and R(1993: 658)의 SELF anaphors: [NP Pron/SE [N" self]]이며
Geldren의 'myself, yourself' 1,2인칭 재귀사 구조 형태라고 본다



1) Geldren(2010)은 영어의 복합재귀사 형태가 만들어진 것은 소유격 my, your과 목적격 him, her, them이 self와 결합되는 역사적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 영어 복합재귀사 myself, yourself는 SELF 대용사 내부 구조 [NP Pron/SE [N' self]]의 Pron 위치인 것은 himself의 him과 같다. 그러나 DP 구조에서 핵 D 자리 한정사가 없는 구조이며, my는 DP의 지정어 위치이고 self는 핵범주의 보충어 자리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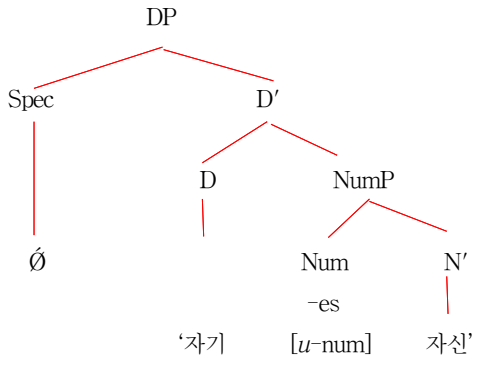
'자신'은 얼핏 단독 어휘이므로 SE 재귀사 내부구조 [NP SE [N' ... e ...]]의 SE 위치에 있다고 보일지 몰라도 SELF 대용사 내부구조 [NP Pron/SE [N' self]]에서 self의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소유격대명사와 결합된 형태인 '나/너/그 자신'으로도 나타나, 영어 재귀사 myself, yourself와 같은 형태소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나/너/그 자신' 가운데에서도 '나(의) 자신, 너(의) 자신, 그(의) 자신'의 '나, 너, 그'는 대명사의 소유격 형태이므로 [Pron/SE [self]] 내부구조의 Pron 위치에서 myself, yourself, ourself의 my, your, our 처럼 SPEC 위치이다.

(6) 복합재귀사 '자기 자신' 구조[2)]

'자기'의 SE anaphors: [NP SE [N' ... e ...]]와

'자신'의 SELF anaphors: [NP Pron/SE [N' self]]가 결합한 형태로 본다.



'나(의) 자신, 너(의) 자신, 그(의) 자신'의 '나, 너, 그' 소유격 형태이므로 [Pron/SE [self]] 내부구조의 Pron 위치에서 myself, yourself, ourself의 my, your, our 처럼 SPEC 위치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자기'는 소유격 형태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D의 위치라고 보인다. 김용석(2000)이 '자기'를 DP의 핵 D로 보고 있으며, '자신'은 N으로 보고 분석한 견해를 지지한다. 그 이유는 한국어가 핵말언어이기 때문에 DP 안에서의 이동을 하느냐 안하느냐 보다, 복합재귀사 '자기 자신'에 대한 선행어 결속 해석이 '자신'이나 '나/너/그 자신'과 다른 결속 현상을 보인다는 것도 그 한 이유가 될 것이라고 본다.

즉, 복합재귀사 '자기 자신'은 SE 재귀사와 SELF재귀사가 결합된 형태이며, '자기'는 DP의 D 위치, '자신'은 N 위치의 구조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두 재귀사의 자질 속성을 지닌 채 사용되어 둘 중 하나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을 피하는 해석을 보이며 결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1인칭과 결속 해석되지 못하고, 2,3인칭 하고만 결속 해석되어 진다.

2) 한국어에는 DP 구조가 없다는 입장이 있고, 한국어 소유격 구문은 실제로 영어의 소유격과는 다르게 취급된다는 입장이 있다.

2.3 한국어 단순, 복합재귀사 인칭별 결속 분석

전위태(1996:170)에 의하면 선행어의 선호조건으로 화용적위계가 필요하고 재귀사는 화용적 위계가 높은 선행어와 결속한다고 한다. 재귀사의 선행어로 적격이 되는 조건은 인칭(PER), 문법관계(SORT OF NOUN), 유정성(HUN), 의미역항(THEMATIC ROLE), 화용면(PRAG) 등으로 구분하고 화용적 위계를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7) 화용적 위계표(선행어 적격조건)

	PER	OR	SON	HUM	TH	PRAG
high 1	3RD	SUBJ	PROPER	+HUM	AGENT (as subject)	TOPIC
2		OBJ	COMMON	+ANI	GOAL SOURCE	NON-TOPIC
low 3	2ND/1ST		PRONOUN	-ANI	THEME	

즉, 선행어는 반드시 화용적 위계상 재귀사 보다 위계가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어 재귀사가 통사적 결속이론 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점이 많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기의 선행어로 선택되는 선호조건을 전위태(1996)는 화용적 위계를 선행어 적격조건으로 정하여 통사 정보와 상호 작용으로 결속 관계 해석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화용적 위계는 ARG-ST에서의 사격성 위계[3]와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내포문이 없는 단문이기 때문에 국부결속되어 단거리 결속만 일어나고 있는 경우를 보자.

(8) a. 철수$_i$가 영희$_j$에게 자기$_{i/j}$를 믿게 했다.
b. 철수$_i$가 나$_j$에게 자기$_{i*j}$를 믿게 했다.

위 문장들은 사역문이고 여기서 VP{-게]는 NP[DAT]에 의해 통제되므로 사격결속원리[4] A에 의하여 a는 NP$_j$ 인 영희$_j$와 결속된다. 동시에 화용적 위계가 GOAL인 NP$_j$보다 더 상위이며 사격성[5]이 더 작은 NP$_i$ 인 철수$_i$ 와도 결속이 가능하다. 그러나 b에서는 '나'가 1인칭이므로 화용적 위계가 같으므로 '자기'의 선행어로 부적하다. 그러므로 결속되지 못하고 철수와 결속된다.

선행어가 3인칭과 1인칭 인 경우, 단순재귀사와 복합재귀사를 비교해 보자.

3) 사격성 위계는 HPSG에서 대용어에 대한 결속이론의 중심적 개념은 성분통어가 아닌 사격성 위계를 개념으로 사격통어에 의해 SUBCAT에 나타나는 범주들의 상대적 사격성에 의해 그 관계를 보인다.

4) Pollard and Sag(1992:293)의 HPSG 사격결속원리 A는 다음과 같다.
A. A locally o-commanded anaphor must be locally o-bound.

5) 사격성이 더 작은 것은 동사와의 관계가 더 멀다는 의미이다. 사격성은 술어인 동사나 형용사가 여러 요소들을 지니고 있을 때 이들 요소들이 술어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술어와 관련성이 큰 경우를 사격성이 크고(more oblique) 관련성이 작은 경우는 사격성이 작다(less oblique). 이들에 대한 일반화는 Dowty(1982), Keenan and Comrie(1977), Jakendoff(1972)의 의미역 관계, Fillmore(1968)의 계층관계 등 계층적 문법 관계를 기초로 Pollard & Sag는 사격성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9) a. 철수$_i$는 누구보다 자기$_i$를/자신$_i$을 사랑한다.
b. 철수$_i$는 누구보다 그 자신$_i$을 사랑한다.
c. 철수$_i$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_i$을 사랑한다.

(10) a. 나$_i$는 누구보다 자기$_{*i}$를/자신$_{?i}$을 사랑한다.
b. 나$_i$는 누구보다 나 자신$_i$을 사랑한다.
c. 나$_i$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_i$을 사랑한다.

(11) a. 너$_i$는 누구보다 자기$_i$를/자신$_{?i}$을 사랑한다.
b. 너$_i$는 누구보다 너 자신$_i$을 사랑한다.
c. 너$_i$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_i$을 사랑한다.

위의 예 (11a)에서 '자기'는 1인칭 선행어와 결속되지 못한다. '자신'의 경우는 모호하다. 올바른 표현은 '나는 누구보다 나를/나 자신을 사랑한다'로 되어야 한다. 전위태(1996:170)의 선행어의 적격조건으로 화용적 위계 제안에 따라 한국어 재귀사 '자기'는 화용적 위계가 낮은 선행어와는 결속되지 못한다. 3인칭 선행어와는 결속되나 1,2인칭 선행어와는 결속되지 못한다.

그러나 (11b)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선행어 1인칭과 복합재귀사 '나 자신'이 '나'와 결속되는 것은 정문이다, 다른 차이점은 복합재귀사 나 자신의 '자신' 앞 위치에 소유격 인칭대명사 '나'가 결합된 형태라는 점이다. '자기'는 2,3인칭대명사와 결속된다. '자신'은 123인칭 모두에 허용되는 듯하나 어색한 면을 지니고 있어 복합재귀사 '나/너/그 자신'의 형태를 지니고 있을 때만 명확하게 결속 해석된다.

복합재귀사 '자기 자신'의 경우 '자기 자신'의 경우 복합재귀사 '자기 자신'이 '나'와 결속되는 것은 어색하기 이를 데 없다. (3)에서 1인칭 '나'와는 결속되지 않지만 2인칭 '너'와는 결속 허용된다. '자기 자신'은 2,3인칭 하고만 결속해석 되어 진다. 이것은 Geldren(2010)의 주장처럼 통사적 구조만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앞에서 언급한 문장이 '나'로 대치된 다음의 예를 보고 그 차이를 보자

(12) a. 철수$_i$가 영희$_j$에게 자기$_{i/j}$를/자신$_{i/j}$을 믿게 했다.
a'. 철수$_i$가 영희$_j$에게 자기 자신$_i$을 믿게 했다.

b. 나$_i$는 영희$_j$에게 자기$_{*i/j}$를/자신$_{*i/j}$을 믿게 했다.
b'. 나$_i$는 영희$_j$에게 자기 자신*$_{i/j}$을 믿게 했다.

c. 철수$_i$가 나$_j$에게 자기$_i$/자신$_i$/ 자기 자신$_i$을 믿게 했다.
c'.철수$_i$가 나$_j$에게 자기 자신$_i$을 믿게 했다.

위의 예에서 '자기 자신'이 1인칭 선행어와 결속되어 어색한 표현이 되는 반면 3인칭 선행어와는 결속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자기'의 분포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그렇다면 '믿게 했다' 대신 '믿으라고 했다'인 경우는 어떨까?

(13) a. 철수$_i$가 나$_j$에게 자기$_i$를/ 자기 자신$_i$을 믿게 했다.
b. 철수$_i$가 나$_j$에게 자기$_i$를/ 자기 자신$_{i/j}$을 믿으라고 했다.

이 경우 '자기 자신'은 '나'와도 결속되어진다. 핵어동사 '믿으라고 했다'의 어휘의미자질 속에는 X가 Y를 '믿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정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재귀사 '자기' '자기 자신'은 1인칭 선행어와도 국부결속 되어질 수 있게 된다. 단 '자기'는 결속되어지지 않는다. 선행어가 1인칭 이지만 주어 철수가 나에게 믿으라고 하는 순간 나는 철수의 상대적 자질 [PER 2nd]을 얻게 되어 '나'가 1인칭 임에도 불구하고 재귀사로 결속해석 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결국 핵어동사의 어휘자질에 의해 결속이 달라지는 화용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인다.

홍성심(2015)은 재귀사 '자기'가 1,2인칭 선행어와 결속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이고, '자신'은 모두 다 허용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용석(2000), 최기용(2014)도 이 점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였다.

그러나 '자기'가 2인칭 선행어와 결속되어 정문이 되는 예를 보자. 재귀사 '자기'가 1,2 인칭 선행어와 결속되지 못한다는 주장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자기'는 1인칭과만 결속되지 못하고 2,3인칭과 결속된다.

(14) a. 너$_i$는 회의에서 자기$_i$만 칭찬했다.
b. 너$_i$는 회의에서 자신$_{?i}$만 칭찬했다.
c. 너$_i$는 회의에서 너 자신$_i$만 칭찬했다.

(15) a. 나$_i$는 회의에서 자기*$_i$만 칭찬했다.
b. 나$_i$는 회의에서 자신$_{?i}$만 칭찬했다.
c. 나$_i$는 회의에서 나 자신$_i$만 칭찬했다.

위 예 a에서 '자기'는 2인칭 선행어와 결속되어 정문이다. 이유는 '자기'는 현대 한국어에서 이미 '상대방이나 연인, 친한 사이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녀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어휘자질로 인칭대명사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은 약간 어색하지만 사용가능하다. 왜 그럴까? 2인칭 선행어는 1인칭보다 위계가 다소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본다. 즉, '자기'는 동일절에서 2인칭과는 결속되어진다. '자신'은 모두 허용된다.

(16) a. 재귀사 '자신'은 선행어 모두에 결속해석 되어 진다. 결속의미해석은 복합재귀사로 해석되는 양상을 띤다.
b. 재귀사 '자기'는 2,3인칭 선행어와 결속해석 되어 진다. 단 동일절에서.

반면, 복합재귀사 '나/너/그 자신'은 1,2인칭 선행어와 결속되어 모두 정문이 된다. 어휘의미 속성상 '자신' 앞의 소유격 대명사가 구현되지 않았을 뿐 내재적 자질로 '나/너/그' 소유격 인칭대명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복합재귀사 '자기 자신'의 경우는 2인칭 선행어와 결속해석되나, 1인칭 선행어와는 결속되지 못한다. 다른 양상을 보인다.

(17) a. 너$_i$는 회의에서 자기 자신$_i$만 칭찬했다.
b. 나$_i$는 회의에서 자기 자신*$_i$만 칭찬했다.

또한 '자기'가 1,2인칭과 결속되지 못한다는 주장(홍성심, 2015)에 대한 다른 반증 예를 보자. 선행어로 2인칭과 결속해석되는 경우를 비교해보자.

(18) a. 너$_i$는 어제 사장에게 자기$_i$를 잘 드러내었다.
b. 나$_i$는 어제 사장에게 자기$_{*i}$를 잘 드러내었다.

a에서 예는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선행어와의 결속보다는 수용성이 다소 떨어진다. 일반적인 담화 상 '자기'는 2인칭 대명사를 선행어로 결속하여 문제가 없다. 역시 1인칭 '나'와는 결속되지 못한다. '자신'의 경우는 모두 허용된다. 일단 이 문제는 2인칭은 1인칭보다 화용적위계가 더 상위이기 때문에 단순재귀사 '자기'가 2인칭 대명사 선행어와 결속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고 위계상에 대한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한다.

(19) 수정 화용적위계 : 3RD>2ND>1ST

다소 미세한 차이 일지라도 2인칭도 1인칭보다는 화용적 위계가 더 높기 때문에 2인칭 선행어가 단순재귀사 '자기'와 결속되어진다고 본다. 핵구조문법에서의 관점제약과 상호보완적인 화용적 위계에 의해 결속 해석이 이루어진다.

동사의 의미에 따른 화용정보에 따라 결속되는 선행어 NP가 달라지는 경우를 보자.

(20) a. 철수$_i$는 [영희$_j$가 자기$_{ij}$를 모른다]고 생각했다.
b. 철수$_i$는 [영희$_j$가 자기$_i$를 보내기]를 기대했다.
c. 철수$_i$는 [영희$_j$가 자기$_i$를 보러오기]를 기대했다

위의 예 a에서 '자기'가 NP1, NP2와 결속해석이 가능하다면 b에서도 결속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b에서는 NP1인 철수와만 결속이 가능하다. 왜 그럴까? 내포문내의 동사 '보내다, 보러오다'의 어휘 의미자질 속에는 자기가 자기를 보낸다거나 자기가 자기를 보러온다는 의미자질을 어휘정보에 지니고 있으면 어색하다. 그러므로 단순재귀사 '자기'는 내포문 밖의 NP1과 결속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것은 같은 구조라 할지라도 핵어동사의 어휘정보자질에 의한 화용정보에 의해 결속이 이루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박효명(2004)에 의하면 핵구구조문법의 관점이외에 화자의 주관화에 의해서도 재귀사 결속이 해석된다고 본다. 그런데 이 주관화는 어휘 핵어의 의미적 속성 이외의 요인인 서법(mood)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21) a. 철수$_i$는 영희$_j$에게 자기$_{i/*j}$가 저지른 일을 책임진다고 말했다.
b. 철수$_i$는 영희$_j$에게 자기$_{i/j}$가 저지른 일을 책임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c. 철수$_i$는 영희$_j$에게 자기$_i$가 저지른 일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d. 철수$_i$는 영희$_j$에게 자기$_j$가 저지른 일을 책임지겠느냐고 말했다.
e. 철수$_i$는 영희$_j$에게 자기$_j$가 저지른 일을 책임지라고 말했다.

위의 a에서 '책임지다'라는 동사는 어휘속성상 AGENT가 책임을 지는 존재이며, PATIENT인 NP2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귀사는 NP1 철수와 결속된다.

위의 b에서는 핵어동사의 이러한 속성에도 불구하고 내포문이 의무(obligation)를 나타내면 철수와 영희 두 명사에 결속되어진다.

위의 c의 경우 '책임지겠다'는 것은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화자인 AGENT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므로 행위자에게만 결속된다.

위의 d는 의문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야기를 듣는 PATIENT가 '자기'의 선행어가 된다.

위의 e는 명령의 서법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명령을 받는 PATIENT인 영희가 선행어가 된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왜 일어나는 것 일까? 재귀사 '자기'의 형태구조적인 면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 이것은 화용적인 현상이며 이러한 서법에 의해 재귀사 결속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위 문장들을 주어 자리인 AGENT 위치에 1인칭 '나'가 들어가는 문장으로 되었을 때는 많은 학자들 김용석(2000), 최기용(2014), 홍성심(2015) 등이 논의한 것처럼 '자기'는 장거리 결속에서도 1인칭과 결속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전위태(1996)도 화용적위계상 위계가 낮은 선행어와 결속되지 못한다고 제안 했다.

그러나 의무를 나타내는 '책임지어야 한다'는 핵어동사의 PATIENT 위치에 1인칭대명사 '나'가 들어가 대체 되는 경우, '자기'가 1인칭과도 결속되는 흥미로운 모습을 보인다.

(22) b. 철수$_i$는 영희$_j$에게 자기$_{i/j}$가 저지른 일을 책임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b' 철수$_i$는 나$_j$에게 자기$_{i/j}$가 저지른 일을 책임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위 문장에서 보면 그들의 주장과 다르다. 즉 재귀사 '자기'가 선행어 1인칭 대명사인 '나'와 결속되어진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것은 '자기'의 어휘자질에 인칭대명사 [PER 2nd] 자질이 내포되어 있는 현대영어의 자질을 가볍게 보고, 일반화했기 때문이다. '자기'와 2인칭대명사 선행어와의 동일지시적 해석을 문법적이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귀사 '자기'가 1인칭대명사인 선행어와 결속되어지지 못한다는 주장은 재논의가 되어야한다고 보여진다.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 2인칭 대명사 '너'가 AGENT 위치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더 흥미로운 모습을 보인다.

(23) a. 너$_i$는 영희$_j$에게 자기$_{i/*j}$가 저지른 일을 책임진다고 말했다.
b. 너$_i$는 영희$_j$에게 자기$_{i/j}$가 저지른 일을 책임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c. 너$_i$는 영희$_j$에게 자기$_i$가 저지른 일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d. 너$_i$는 영희$_j$에게 자기$_j$가 저지른 일을 책임지겠느냐고 말했다.
e. 너$_i$는 영희$_j$에게 자기$_j$가 저지른 일을 책임지라고 말했다.

위 예들 a,b,c,d,e 역시 그들의 주장과 다르게 재귀사 '자기'는 선행어 2인칭 대명사인 '너'와 모두 결속되어진다. 화용론적인 서법의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그 이유는 '자기'의 어휘자질 [PER ana]에 인칭대명사 [PER 2nd] 자질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일반화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귀사 '자기'가 1,2인칭대명사인 선행어와 결속되어지지 못한다는 주장은 재고되고 결속영역에 대한 전제 조건이 더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같은 구조라 할지라도 핵어동사가 특별한 어휘정보자질을 지니고 있는 경우, '자기'가 선행어 1인칭 '나', 2인칭 '너'에 모두 결속되어 그들의 주장을 무색하게 한다. 이것은 선행어 인칭에 관계없이 특별한 어법인 서법(mood)에 의해 핵어동사가 사용될 경우 서법에 따른 결속해석이 이루어 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경우 '자기'는 1,2,3인칭 모두와 결속되어진다.

재귀사 '자신'은 엄밀한 의미에서 복합재귀사로 존재하며 전치된 '나(의), 너(의), 그(의)' 같은 소유격 대명사가 구현되지 않았을 뿐이며, 복합재귀사 나 자신, 너 자신, 그 자신으로 쓰일 때, 결속 해석이 명확해 진다. '자신'이 1,2,3인칭 선행어 모두에 결속 허용되는 것은, SUBCAT 의미자질에 '나/너/그' 자질이 명확히 내재되어 있기에 허용되는 것이고, 내재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경우는 결속 해석이 모호해지는 경우 들이 존재한다. 반면 재귀사 '자기'는 소유격 인칭대명사와 결합되지 못한다. 결국 '자기'와 '자신'은 형태 구조상으로도 단순재귀사와 복합재귀사로 매우 다른 요소임을 확인 할 수 있다.

(24)	나(의) 자신	(25)	*나(의) 자기
	너(의) 자신		*너(의) 자기
	그(의) 자신		*그(의) 자기

또한 '자신'은 '자기 자신'의 복합재귀사 형태로 사용 가능하지만, '자기'는 '자기 자기'의 형태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자신'은 전치된 소유격대명사가 구현되지 않고 내포된 복합재귀사로 봐야하기 때문에 전위태의 화용적 위계표 제안대로 결속되어지지 않는다. 선행어 적격조건으로써의 화용적 위계는 단순재귀사 '자기'에 국한 된다는 것이라고 제안 한다.

결속이론은 형상적 이론이든 비형상적 이론이든 초 장거리 결속 까지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기술하려는 대상의 기본단위로 삼는 영역 안에서 주어진 문장의 의미를 적절하게 해석하는 것이 통사 의미적 장치일 뿐이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각 언어 개별적 변인이 제일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며 언어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으므로 연구 대상에 계속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3. 결 론

김용석(2000), 최기용(2014), 홍성심(2015) 등이 논의한 것처럼 '자기'는 장거리 결속에서도 1,2인칭과 결속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전위태(1996)도 화용적위계상 위계가 낮은 선행어와 결속되지 못한다고 제안 했다.

본고에서는 단순재귀사와 복합재귀사를 분류한 Reinhart and Reuland(1993), Reuland(2006)의 제안을 한국어 재귀사에 적용해 분류 수정 제안하고, Geldren(2010)의 재귀사구조를 한국어 복합재귀사에 적용 분석하여 '자기'와 복합재귀사 '나/너/그 자신'과 '자기 자신'의 인칭별 결속해석 양상을 분석하여 인칭별 제약을 보였다.

즉, 단순재귀사 '자기'는 1,2인칭과 결속되지 못하며, '자신'은 모두 허용 된다는 주장(김용석, 2000; 최기용, 2013; 홍성심, 2015)에 대해, 본고에서는 2인칭과 결속되는 경우를 보이고 전위태(1996) 화용적위계표의 수정도 제안하고. 한국어 단순재귀사 '자기'는 1인칭 선행어와 결속되지 못하고 2,3인칭대명사와 결속된다고 제안한다.

그런데 재귀사 '자기'는 특별한 의미자질 '책임지다'를 지니는 핵어동사의 PATIENT 위치에 1인칭대명사 '나'가 들어가 있는 경우, '자기'가 1인칭과 결속되는 흥미로운 모습을 보인다. 핵어동사의 어휘의미자질과 현대한국어 '자기'의 인칭대명사 [PER 2nd] 어휘자질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자기'는 선행어 2인칭 대명사인 '너'와도 모두 결속되어지는 경우도 보았다. 역시 그 이유는 '자기'의 어휘자질 [PER ana]에 인칭대명사 [PER 2nd] 자질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일반화했기 때문에 1,2인칭과 결속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재귀사 '자기'가 1,2인칭대명사인 선행어와 결속되어지지 못한다는 주장은 재고되고 결속영역에 대한 전제 조건이 더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자신'은 엄밀한 의미에서 복합재귀사로 결속 해석되며 전치된 '나(의), 너(의), 그(의)' 같은 소유격 대명사가 구현되지 않았을 뿐이며, 복합재귀사 나 자신, 너 자신, 그 자신으로 쓰일 때, 결속 해석이 명확해 진다. '자신'이 1,2,3인칭 선행어 모두에 결속 허용되는 것은, SUBCAT 의미자질에 '나/너/그' 자질이 명확히 내재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이고, 내재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경우 결속 해석이 모호해지는 해석들이 나타난다. '자신'이 단순재귀사가 아니며 엄밀한 결속해석에서 복합재귀사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

'자신'은 전치된 소유격대명사가 구현되지 않고 내포된 복합재귀사로 봐야하기 때문에 전위태의 화용적 위계표 제안대로 결속되어지지 않는다. 그 화용적 위계는 단순재귀사 '자기'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복합재귀사 '자기 자신'은 SE 재귀사와 SELF재귀사가 결합된 형태이며, '자기'는 DP의 D 위치, '자신'은 N 위치의 구조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두 재귀사의 자질 속성을 지닌 채 사용되어 둘 중 하나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을 피하는 해석을 보이며 결속 해석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1인칭과 결속 해석되지 못하고, 2,3인칭 하고만 결속 해석되어 진다.

또한 같은 구조라 할지라도 핵어동사가 특별한 어휘정보자질을 지니고 있는 경우, '자기'가 선행어 1인칭 '나', 2인칭 '너'에 모두 결속되어 그들의 주장을 무색하게 한다. 이것은 선행어 인칭에 관계없이 특별한 어법인 서법(mood)에 의해 핵어동사가 사용될 경우 서법에 따른 결속해석이 이루어 질 수도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김용석. 2000. 재귀사의 형태-통사론적 분석: 최소주의적 접근.『현대문법』19, 1-26.

박강희. 2009.「제약기반의 직접논항 결속으로」.『국제언어문학』20, 55-74.

박의재. 1999.『중세영어의 통사구조』. 문경출판사.

엄홍준. 2014. 한국어 재귀사 '자기'의 속성.『언어』39.4, 2014, 899-919.

이필환. 2006. 영어 재귀 대명사의 역사적 변화.『영어학연구』21, 43-72.

전위태. 1996. HPSG의 사격성 위계(Oblique Hierarchy)의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최기용. 2014. 피결속-변항 대명사로서의 '자기'.『생성문법연구』24, 325-364.

홍성심. 2015. 1-2인칭 재귀사와 3인칭 재귀사의 형태구조적 비대칭성: 문법화의 관점에서.『언어연구』31.1, 179-197.

Chomsky, N. 1986a.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Praeger, New York. .

Chomsky, N. 1991. Some Notes on Economy of Derivation and Representation. *Principles and Parameters in Comparative Grammar*. (ed.) Robert Friedin. Cambridge. Mass.: MIT Press.

Chomsky, N. 1992.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MIT Occational Papers in Linguistics*, 1.

Chomsky, N. and H. Lasnik. 1991. Principles and Parameters Theory. *Syntax: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Contemporary Research*. Berlin: Walter de Gruyter. .

Geldren, E. van. A. 2010. History of English Reflexive Pronouns Person, SELF and Interpretabilit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Huang J. and J. Tang.1988. On the Local Nature of the Long-Distance Reflexive in Chinese. Paper presented at NELS 19 meeting.

Iida, Masayo. 1989. HPSG Account of Japanese Zibun ms. Center for the study of Language and Information. Stanford University.

Iida, Masayo. 1992. *Context and Binding in Japanese*. Ph.D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Keenan, E. 2003. An Historical Explanation of Some Binding Theoretic Facts in English. Moore, J. and M Polinsky (eds.). *The Nature of Explanation on Linguistic Theory*, 152-89. Chcago: CSLI Publication.

Manning, Christopher, Ivan A Sag. 1998b. Argument Structure, Valence, and Binding. *Nordic Journal of Linguistics* 21, 107-144.

Pollard, C. and I. A. Sag. 1992. Anaphors in English and The Scope of Binding Theory. *Linguistic Inquiry* 23.2, 261-303.

Pollard, C. and I. A. Sag. 1993.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Volume 2.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nd CSLI Publications.

박강희, 교수
경북 경주시 강동면 동해대로 261
위덕대학교 영어학과
E-mail: khpark@uu.ac.kr